

2017년 Cheer Up 학회장 인사말

13학번 김동현

안녕하십니까 2017년도에 철학과를 이끌 cheer up 철학과 학회장 철학과 13학번 김동현입니다. 올해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꼭 한번 학회장 이란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. 결국 되었고 여러분들의 성원을 입어 제가 학회장이 되었습니다. 2016년 사건사고도 많았고 즐겁기도 했고 힘든 일 도 많았던 저희 철학과 제가 내년에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세운 cheer up 은 철업 힘을 주다 힘내게 해주다 라는 뜻이 있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철학과를 같이 이끌 집행부들 까지 열심히 철학과 학우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 할 것 입니다. 내년 철학과 20주년입니다. 20년 동안 철학과를 이끄신 선배님들과 저희를 잘 가르쳐주신 교수님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년에 들어올 철학과 신입생들을 정말 신나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교에 정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철학에 대해서도 흥미를 많이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. 앞으로 제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이번 제주소피아 주제는 '추억'인데요, 이번 2017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, 그리고 내년에 학과생활을 하게 될 재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철학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